

[특집 논문]

소설의 창작과 언어의 문제

-김학철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해영

(중국해양대)

차례

1. 들어가기

2. 공식 언어와 정통성

3. 비공식 언어와 민중성

4. 결론

1. 들어가기

언어는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로 분류된다. 이는 미하일 바흐친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언어를 사회·이념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공식 언어란 한 민족과 시대의 지배적·공식적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언어로서 문예언어, 단일언어, 공용어, 표준어 등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 비공식 언어란 이러한 자기 시대의 공식 언어를 패러디(parody)하면서 그에 대해 날카롭게 논쟁적으로 적대하는 언어로서 지배적·공식적 담론에 대항하는 주변부를 이루는 언어이며 다양성과 대화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¹⁾ 언어의 이러한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으로의 분류에 의하여 문학 역시 공식 문학과 비공식 문학으로 분류된다. 공식 문학이란 한 민족과 시대의 공식적·지배적 문예이론에 의해 창작되고 해석되며, 그 민족과 시대의

1)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pp.64~190 참조.

공식적·지배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심 문학이다. 비공식 문학이란 그러한 공식적·지배적 문예이론에서 벗어나 다양함을 추구하며 공식적·지배적 담론 보다는 주변부를 위하는 문학이다.

중국 조선족 소설은 역사·철학적 특수성으로 하여 오랫동안 정치·문학 일원론의 원칙에 의해 창작되고 해석되어 왔으므로 언어와 문학의 이러한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의 특징이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로 엇갈리며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의 문제는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한 조선족 작가들의 문학적 대응양상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창작된 김학철의 두 편의 장편소설은 각각 언어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을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학철의 두 편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와 『걱정시대』를 통하여 조선족 소설의 주요한 언어적 특성인 언어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김학철 소설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는 그의 대표작 『걱정시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언어의 풍부함과 방대함, 그리고 속담과 관용구 등의 표현적 특징을 추출하는데 머물렀을 뿐이다. 이는 소설 언어의 역동적인 대화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설 언어를 정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본 결과이며, 소설 언어가 장르 차원의 관심사나 작품 자체로부터 분리된 채, 언어 일반에 속하는 한 현상으로 취급된 결과이다.

여기서는 김학철 소설의 언어적 특성에 대하여 그의 개인적 발언이나 사적인 문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반 조선족 소설의 언어적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언어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언어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이 어떻게 각각의 소설에서 전체의 어조를 뒷받침하고, 소설 전체의 통일적 의미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과정 속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이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볼 것이다.

2. 공식 언어와 정통성

공식 언어는 민족과 시대의 언어·이념적 삶에 존재하는 언어학적 중심에 놓여 있고 한 민족 또는 시대에 지배적으로 통용되며 표준어, 문예언어, 단일언어와 동등한 맥락에 놓인다. 공식 언어는 공식적인 사회·이념의 차원에서 언어·이념적 세계의 문화적·민족적·정치적 집중화와 통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세한 한 언어(방언)의 여타 언어들에 대한 승리 및 그것들의 추방과 예측, 유일한 진짜 언어에 의한 조명, 미개인과 하층민의 문화 및 진실의 통일언어로의 병합 등이 공식 언어를 형성하기 위한 집중과 통일의 과정이다.²⁾ 그러므로 문학 창작에서 공식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식 문학의 창작을 의미하며 곧 자기 시대의 지배적 담론에 의탁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배담론에 의탁함으로써 언어낼 수 있는 안정감은 이념의 차원에서 기존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정신구조가 동일한 언어체계에 의존하여 작품을 쓰는 경우 지배담론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³⁾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조선족의 첫 장편소설이자 김학철의 첫 장편소설이기도 한 『해란강아 말하라』는 바로 195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사회의 공식 언어에 의해 창작 되었으며 이 시기 조선족 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놓여 있는 공식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해란강아 말하라』는 소설의 지문과 작중인물의 대화 모두 서울말에 기초한 표준어 즉 공식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즉 소설은 1930년대 연변 즉 간도 지방 조선족 인민들의 반일 투쟁과 반봉건 투쟁, 그들의 삶과 생활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간도 지방 조선족 인민들의 삶의 구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함경도 방언 대신 서울말에 기초한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다. 바흐친에 의하면 표준어는 단일언어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단일언어란 언어의 통합과 집중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추상화된 표현, 즉 언어에 존재하는 구심적 힘들의 표현이다. 단일언어란 본질적으로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상정된 어떤 것으로서, 그 언어학적 진화과정의 계기마다 언어적 다양

2) 위의 책, pp.76~82 참조.

3) 우한용, 「蔡萬植 文學의 民族文學의 性格과 世界性」, 『조선 - 한국문화의 역사와 전통 - 언어·문학 분과 발표 논문집』(연변대학교 창립 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 8, p.11.

성의 현실에 대립한다. 단일언어란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집중의 과정과 긴밀히 관련을 맺는 가운데 구체적 언어와 이념의 집중과 통합을 향해 작용하는 힘의 표현이다.⁴⁾ 그러므로 소설에서 함경도 방언의 거부와 표준어 구사는 작가의 이념적 사고의 중심화 즉 언어와 이념의 집중과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며 세계에 대한 작가의 파악 방식의 직접성과 단일성을 보여준다. 표준어의 구사는 설화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입과 통제와 같은 맥락에 놓이는 것이다.

김학철의 표준어 구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 말의 정확성의 잣대랄까 표준이 서울말로 되고 있음이다. 김학철은 수필 「아름다운 우리 말」에서 연변식 비표준어 ‘선생질’, ‘의사질’, ‘동무’…… 등에 대하여 꼬집던 끝에 아래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 펍 인상적이다.

우리 انسان에 대해서도 나는 차차 불만이 커가는중이다……시집을 갓 왔을 당시에는 고운 서울말씨로 땡갈땡갈 지껄여서 내 귀에 음악적인 희열을 갖다주던 것이 이제 와선 아주 글러먹었으니까 말이다. 그전에는 내가 저녁때 늦게 돌아오면 의례 고운 서울말씨로

《진지는요?》

물으며 부지런히 일어나 행주치마를 두르곤 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이 근년에 와서 는 그 아름다운 말씨 - 《진지》를 도태하고 시급털털한 말투로

《식사?...》

하고…… 이제 그래 현저한 퇴보가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⁵⁾

위의 인용문에서 서울말씨가 ‘고운’, ‘아름다운’ 말씨로 되어있고 ‘고운’ 서울 말씨란 ‘내 귀에 음악적 희열을 갖다주던 것’으로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학철은 우리 말의 표준을 서울말에 두고 있는데 그는 어느 편집자가 자신의 소설을 편집할 때 “있어요”를 “있어요”로 고쳐놓은 사실을 예

4)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pp.77~78.

5) 김학철, 「아름다운 우리 말」, 『태향산록』, 연변인민출판사, 1998, pp.350~351.

로 들면서 “서울발송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라”고 한다. 거기서 “했는데요”, “있는데요”를 쓰는가 안쓰는가 보라는 것⁶⁾이다. 그 외에도 작가는 ‘아씨’, ‘드난살이’ 등 고유의 서울말을 고집한다. 김학철은 함경도 방언으로 대표되는 연변식 말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가 “세상이 딱 귀찮은 생각까지들”거나 그렇게 말하는 남자를 보면 “귀싸대기를 한대 갈겨주고싶”⁷⁾기까지 하다. 이런 거부감은 서울말에 대한 자의식과 동일선상에 놓인다.

김학철에게 있어서 서울말이란 문학 습작기의 언어이다. 김학철은 1929년 13세때 서울 외가집(관훈동 69번지) 도움으로 서울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34년 18세때 졸업한다. 서울보성고등학교란 서울의 전통을 갖춘 명문고등학교로 김학철에게는 자량과 긍지 자체이다. 이 서울보성고등학교에서 김학철은 한때 문학에 미쳤었고 소설 습작도 진행한다. 김학철의 사상의 본격적인 형성기와 문자 생활의 성숙기, 첫 습작기의 언어 환경은 서울 즉 서울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서울말이란 곧 서울 시절, 청소년기, 서울보성고등학교 시절의 의미를 가진다.

중국으로 탈출한 후, 그는 상해, 남경, 태항산 등 중국 관내에서 투쟁에 참가했으므로 그곳에 모인 그의 전우들과만 우리 말을 썼고 중국어를 습득하여 중국어가 생활언어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서울말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그는 일본 감옥에서 석방되어 서울로 귀국하며 서울에서 조선독립동맹의 간부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작가 되기의 첫 실천으로 10여 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여 『신문학』 등 잡지에 발표하며 문학가동맹의 리태준, 김남천, 리원조 등 중견작가, 비평가들을 만나게 된다. 그의 본격적인 습작기 역시 서울, 서울말을 그 환경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부인 역시 인천 태생으로 그는 가정에서 여전히 서울말을 쓸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서울말에 대단한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바 서울말이란 그에게 있어서 곧 청소년기의 기억이며 서울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향수의 한 표현형태이다. 서울

6) 위의 글, pp.351~352.

7) 위의 글, p.350.

말에 대한 대단한 애착과 고집, 서울말=표준어라는 그 자의식의 근저에는 그의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김학철은 문학작품에서의 서울말과 방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홍명희선생의 《림격정》에서는 전라도기생 계향이도 서울말을 하고 평안도기생 초향이도 서울말을 하고 그리고 서울기생 소흥이도 역시 서울말을 한다(이것은 물론이다). 리기영선생이 그 작품들에서 서울말과 지방의 사투리말을 놀랄만큼 능숙하게 구분하여 구사하는데 비하면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부족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림격정》의 인물들이 쓰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말-자랑스러운 말이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김학철은 리기영의 창작에서의 방언의 활용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비해 『림격정』의 일절 서울말 표현에 대해 “부족점”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니와 이는 김학철이 문학작품에서 방언이 갖고 있는 표현의 힘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림격정》의 인물들이 쓰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말-자랑스러운 말”이라고 극구 긍정하는데서 그의 서울말에 대한 자의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창작에서 함경도 방언, 연변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서울말, 표준어로 일관되고 있다. 그의 체험적 장편소설 『격정시대』가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함은 부분적으로 서울말의 부드러움과 풍부함에 힘입었거니와 이는 작가의 서울말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자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연변인민의 반제반봉건 투쟁의 형상화인 『해란강아 말하라』가 서울말, 표준어로 일관되어있음은 작가의 결정적인 실착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연변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농민들인 한영수, 머슴 임장검, 허연하, 박서방, 박서방 댁 등이 모두 표준말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인데.....”

8) 위의 글, p.351.

“엄려 마세요.”

“우리집은 아시다시피 아래 옷간뿐이라 남의 눈을 기실 재간이 없구 해서요……”

“즈의 집 골방이 알맞춤허잖아요?”

“구들 밑에, 내 생각 같아선, 움을 팠으문 좋을 상 부르는데요……”

“음요? 어렵잖아요. 근데 언제께나?……”

“건, 숨을 데만 다 되문 아무 때구……”

“좋아요. 건, 오늘밤부터라도 파내두룩 허겠습니다.”

“예, 그럼 저녁 후에 내, 장검이와 영옥일 보낼 테니요.”(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p.106.)

위의 인용문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한영수와 허연하가 주고받는 말이다. 대화의 말미가 서울말의 “요”체에 의하고 있으며 유난히 끝이 짧은 함경도 방언의 말미인 “둥”, “습꾸마” 등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 중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도 대체로 표준어이다. 공부도 하지 못했고 서울과도 멀리 떨어진 간도 벽지에 사는 가난한 농사군의 입에서 나오는 표준말이란 그만큼 삶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안수길의 『북간도』에서 구사되는 저 억세고 투박하고 강한 함경도 방언을 떠올려 보라. 그것이야말로 거칠은 간도의 이주민들에게 어울리는 개척자의 야성적이고 힘찬 언어가 아니던가. 그리하여 풍부한 속담과 관용어구 등의 구사로 인한 김학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란강아 말하라』는 언어의 형상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물론 소설에서는 일부 어휘에 대한 방언을 괄호안에 표기하거나 일부 어휘를 방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나루사공’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본지방 말로는 찬 부리는 사람-배를 가리키어 찬이라 하는 중어가 변하여 찬이 되고, 거기에 조선 말 부리는 사람이 더 붙여져서 된 간도 특유의 지방어”⁹⁾라고 방언 표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툰장’이라는 중국식 표기를 하고 괄호 안에 “즉 촌장인데, 당지에서는 중국어 음으로 툰장, 툰장 하고 불렀다”¹⁰⁾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이테기’

9)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풀빛, 1988, p.29.

로 표현되는 중국 군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서마스(무슨 일이오)?”¹⁰⁾라고 중국어 원음으로 적거나 일본군의 말에 대해서는 “일본말과 중국말을 뒤섞은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라이, 또 이우노니(오라, 구 허는데)?”¹¹⁾라고 중국어와 일본어 원음으로 적기도 했다. 이러한 표현은 군벌 혼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특징지어지는 1930년대 중국의 반봉건 반식민지 형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전편 소설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공식 언어의 사용으로 하여 이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정통성을 구현하며 “식민지시대 이래의 우리 장편소설적 전통에 잘 어울리는 규범적 작품이지만, 김학철의 작품세계에서는 좀 외떨어진 작품”¹²⁾으로 된다. 즉 이 작품은 “대체로 무리없이 하나의 서사적 완결성을 지닌 채 연변조선족의 반제반봉건투쟁의 전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형상도 각각의 계급적 전형성을 비교적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교과서적이고 규범적인 작품”¹³⁾이다.

소설은 동만주 간도지방을 흐르고 있는 해란강 유역에서 반봉건투쟁과 반제투쟁(항일투쟁)이 교차하던 1931년 가을부터 1932년 겨울까지의 조선인 이주자들의 인민투쟁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략사』에는 이 시기의 시대배경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동만전역이 그러하듯이 32년 늦은 봄에서 겨울에 걸쳐서 해란강일대의 농민들도 역시 압당한 검정구름의 그늘아래서 세월을 보내었다. 일제는 <9.18> 사변후 저들의 식민지화음모와 파쇼적통치로 하여 야기된 여러 민족 인민들의 반일정서와 반항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인민들의 애국의식과 반항투쟁은 반동의 선불맞은 고조기를 휘몰아온것이였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손길이 인민들속에 확고한 신심과 신념을 키워주기 전에 그 싹을

10) 위의 책, p.35.

11) 위의 책, p.84.

12)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하, 풀빛, 1988, p.101.

13)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 《창작과비평》, 2002년 봄호, p.242.

14) 위의 글, p.243.

배여버리려 시도하였다. 1932년 한해에만도 일제는 연변에서 4천여명의 군중을 학살하였다. 1932년 봄부터 1933년 사이에 일제는 연길현 해란구에 대해 선후로 94차의 <토벌>을 발동하고 1천 7백여명의 혁명자와 백성들을 살해하여 피로 물든 <해란강대 참안>을 빚어내었다.¹⁵⁾

『해란강아 말하라』의 서사골격은 『조선족략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바, 1927년 중국공산당 만주성 임시위원회, 1929년 동만구위원회가 성립되고, 이어 1930년 「전만농민투쟁강령」이 만들어지면서 동만주 일대에 ‘붉은 5월투쟁’이 벌어져 일제와 악질지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¹⁶⁾ 등 강력한 반제반봉건투쟁이 전개되던 일련의 실제 역사의 과정이 소설 속에 형상화 되고 있다. 김학철도 소설의 머리말에서 소설이 역사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내가 한 일이란 오직 허다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심지어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까지를 내바친 선열들에 의하여 이미 엮여진 역사 사실을, 그도 극히 적은 일부분을 추려내어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였음에 불과합니다.¹⁷⁾

이러한 역사에 대한 모사적 진실과 함께 소설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그 정형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된 서사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정통성을 구현하고 있다.

소설의 세계는 주로 연변 연길현(지금은 용정시로 개칭) 해란구 버드나뭇골을 중심으로 한 해란강 양안의 조선인 마을들과 국자가, 마반산, 화련-네 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버드나뭇골을 중심으로 한 해란강 양안의 조선인 마을들은 지주와 머슴을 비롯한 소작인들의 대결의 공간이다. 대결은 주로 버드나뭇골에서 이루어진다. 국자가는 일본 영사관이 자리한 곳으로서 이 소설에서 그곳은 일본제국주주의 세력의 상징이다. 마반산은 중국의 공안분주소가 자리한

15) 『조선족략사』, pp.100~101.

16)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집필 소조, 『중국의 우리민족』, 한울, 1988, pp.65~66.

17) 김학철, 「머리말」, 『해란강아 말하라』, 위의 책.

곳으로서 그곳은 중국의 구 군벌 세력을 상징한다. 화련은 버드나뭇골을 비롯한 해란강 양안 마을들의 농협책임자들이 투쟁 상황을 회보하고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는 공간이다. 그곳은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 공산당원 장극민이 있는 공간이다. 한영수들의 모든 활동과 투쟁은 화련의 구체적인 영도와 지시를 받으며 그들에게 화련은 정치적인 고향의 이미지이다. 즉 그곳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필적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 네 물리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공간은 버드나뭇골과 국자가 일본 영사관이 대결하고 있는 중간에 마반산 공안분주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공안분주소는 상황에 따라서 투쟁적이 될 수도 있고 일제와 결탁 내지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 바깥에 화련이 존재하고 있는데 화련은 주로 버드나뭇골과 단선적으로 연계를 맺으며 버드나뭇골을 통하여 국자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간접적으로 부딪친다.

이 네 개의 공간의 중심은 당연히 버드나뭇골이다. 이 네 개의 공간이 부딪치는 곳은 버드나뭇골이며 버드나뭇골에 반제·반봉건 투쟁이 집약된다. 버드나뭇골은 투쟁과 대결의 공간이며 작가는 반제반봉건 투쟁을 버드나뭇골에 축약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버드나뭇골에는 자연히 이 소설의 중심 갈등이 자리한다. 버드나뭇골에서는 박승화와 최원갑이를 한 축으로 하는 지주·부농계급과 한영수·임장검이를 한 축으로 하는 농민·소작농계급이 팽팽히 대결한다. 그 사이에 놓인 것이 이른바 '단결할 수 있는 역량'인 김행석이와 머슴 김서방이다. 김행석이와 김서방은 양축으로부터 모두 단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국자가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박승화라는 축을 통하여, 화련의 중국 공산당은 한영수·임장검이라는 축을 통하여 버드나뭇골에서 부딪치며 대결한다.

소설에는 또 한영수·임장검이와 한축이었으나 나중에 전향·변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소자산계급 지식인 김달삼이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김달삼은 소자산계급 지식인의 특징을 한 몸에 체현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한영수를 비롯한 농민·소작농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소자산계급 지식인의 우유부단함과 나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때로는 자기의 이러한 출신을 저주하며 한영수나 장검이의 거칠 것 없는 출신을 부러워하지만

이것은 그의 공명심의 표출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 판 돈을 훔쳐다가 한영수에게 주려다가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연민에 굴복하고만 사건이나 추수투쟁 중에서 정치에의 지나친 열정으로 단결대상인 아버지-김행석을 투쟁하는데 선두에 선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김달삼이가 우선 생각한 것은 혁명의 이익이나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출신과 처사에 대한 동지들의 시선이다. 이는 소자산계급 지식인 특유의 출신 콤플렉스에서 오는 것이다. 이 출신 콤플렉스를 이기영의 『고향』의 김희준 같은 인물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쟁 중에서 극복하고 성장해가지만 김달삼은 그와는 반대로 타락·변질한다. 결국 그는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박승화와 혁명계급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박승화의 위협에 굴복하고 만다. 소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은 그의 나약함과 혁명에의 투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 마음속으로 한가지 단단히 결정한 것은 있었다. 그것은 다시 더 변경할 여지 없는, 확고부동한, 거의 신념적인 것이었다. -죽, 천하 없어도 지금은 죽지 못한다.....

나이가 삼십도 채 못된 자기가, 남보다 나은 재능을 가진 자기가, 비록 사립학교이기는 하나 그래도 한 학교의 교장을 할만한 학식을 가진 자기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죽어? 안될 말이지!-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마음 속으로 설레설레 머리를 내흔들었다.

나 하나 죽는대도 이 장미빛 세상은 큰 변동없이 여전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즐거울 것 아닌가!.....

‘달삼이, 어쨌든 너는 살아야한다! 우신 살구 봐야 한다!’¹⁸⁾

이와 같이 소설의 인물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형상화 원리에,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과 계급이론, 문예이론에 부합되는 원칙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을 놓고 볼 때, 이 소설의 전반부는 반봉건투쟁으

18)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하, 앞의 책, pp.214~215.

로 주로 박승화를 대표로 하는 지주계급과 한영수·임장검을 대표로 하는 농민 계급의 대결이 추수투쟁, 춘향투쟁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박승화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박승화는 중국인 지주의 마름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인 지주와 같은 계열에 놓이는 그들보다 더 음험하고 지독한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와의 결탁이라는 면에서 보면 박승화는 중국인 지주들에 비해서 더 가증스러운 존재이다. 소설의 후반부는 농민들의 반제투쟁인데 국가자로 표상되는 일본 제국주의와 버드나뭇골 농민들 간의 대결이다. 여기서 대결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의 ‘토벌’에 의해 버드나뭇골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소설은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되고 틀에 짜인 정형적인 서사구조를 지향하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정통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창작에서 공식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195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구현한 것이다. 또한 작품 창작에 사용된 공식 언어는 작가가 일관되게 고집해온 사회주의 리얼리즘 즉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¹⁹⁾이 작품 창작에 강력하게 작용하게 한 매개이다. 이것은 195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지배적 문예이론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해란강아 말하라』는 공식 언어의 사용으로 인한 지배적 담론의 구현으로 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정통성이라는 문학의 공식적 성격을 형성하며, 이러한 문학의 공식적 성격은 또한 작가의 체험의 결여라는 작품의 관념성으로 하여 작가의 정치적 이념의 직접적 표출에로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 언어인 함경도 방언에 대한 무감각함과, 연변의 문학적 공간화에서 함경도 방언의 거부로 하여 소설은 1930년대 연변 즉 간도 지방 조선족 인민들의 반제 반봉건 투쟁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연변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풍속, 우리 민족의 간도 지방에로의 이주와 개척, 정착..., 간도 지방에서 조선족의 특수성과 삶의 구체성, 반제 반봉건 투쟁에서 조선족의 특수한 위치 등이

19) 김학철은 「문학도끼리」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대한 자기의 일관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속에서 역사적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문학예술의 가장 진보적인 창작방법입니다. 동업자 여러분, 저는 시종일관 이 창작방법을 숭상해왔고 또 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 김학철, 「문학도끼리」, 《전지》, 1988년 제6호.

소설 속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체험의 결여로 인한 김학철의 관념적 오류이며 작가의 정치적 이념의 직접적 표출과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바 그것은 소설의 단일성을 초래한다.

3. 비공식 언어와 민중성

비공식 언어는 공식적 차원·지배적 차원과과는 대항적 관계에 있는 비공식적 차원·저급한 차원에서 주로 하층민들에게 사용되는 민중의 언어이다. 도시 및 농촌의 (특히 도시의)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비공식적 측면에는 세계를 보는 특수한 관점, 특수한 현실 선택, 공식적 측면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어떠한 승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언어 속에는 공식적 측면의 언어 및 문학에 대립되는 독특한 모형 체계가 존재한다. 이는 소설에서 민중적 열정의 투박한 솔직성, 광장에서 하는 말에 부여된 방종의 특권으로 나타난다.²⁰⁾

김학철의 『격정시대』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비공식적 측면에 의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이질적인 시각과 독특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파악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믿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세계를 재해석한다. 세계에 대한 재구성과 재해석을 위해 김학철은 소설에서 민중의 생활어, 고유어, 속담, 농담, 해학, 골계 등 언어의 비공식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적 원천과 민속적 원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그것들은 모두 민중성이라는 하나의 시각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으며, 전적으로 새로운 예술적, 이데올로기적 기획의 통일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격정시대』에서는 성장, 가난, 윤리, 도덕, 혁명, 전쟁, 독립운동, 영웅 등의 전통적인 의미가 파괴되고 재해석되며 그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공식 언어에 대한 주변 언어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달리 말하자면 중심언어 혹은 支配談論에 대한 대항담론(counter

20)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p.444 참조.

discourse)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김학철의 『격정시대』의 글쓰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식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격정시대』는 김학철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1916년 식민지의 항구도시 원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시절 원산총파업을 겪고 서울에 유학온 후 광주학생사건, 윤봉길 거사 등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민족의식에 눈떠가던 한 소년이 본격적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건너가 의열단을 거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고, 다시 독립혁명당 소속의 조선의용대의 일원으로 태항산 근거지에서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쟁에 참가하여 혁명전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 소설은 그 큰 틀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성장소설의 한 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격정시대』에서 성장의 개념은 서구형 성장소설에서의 성장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재해석된다. “성장소설이 한 개별자로서의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기 삶의 객관적 조건들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하나의 보편적 역사주체로 서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라면, 이 소설은 바로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그리고 안정된 부르주아 사회로의 편입과정을 그리는 서구형 성장소설과 구별되는 제3세계형 성장소설의 보기드문 한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²¹⁾

서구형 성장소설에서 성장의 개념은 개인의 내면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체험되어진 이상을 길잡이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문제적 개인이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과 화해하는 것을 그 테마로 삼고 있는”²²⁾ 성장 소설에서 그 화해란 바로 문제적 개인의 “내면성과 외부세계의 조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내면성과 외부세계의 조화는 비록 문제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조화는 힘든 싸움과 위험한 모험과 오랜 방황 속에서 꼭 찾아져야 하고, 또 중국적으로 찾아질 수 있다.”²³⁾ 그러므로 여기서 성장이란 “과거에는 고독했고 또 자기 자신 속에서만 폐쇄·칩거하고 있던 인물들이 서로서로 마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정하고 적응시키며”²⁴⁾ 사회적 공동체의 이념 속으로 편입되는

21) 김명인, 앞의 글, p.247.

22)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175.

23) 위의 책, p.176.

24) 위의 책, p.178.

과정으로서 바로 내면의 성장이다.

그러나 『격정시대』에서 성장은 문제적 개인의 내면의 성장 즉 문제적 개인의 내면성이 외부세계와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여기서 성장은 문제적 개인이 외부세계와 격렬하게 부딪치고 대결하며 자기의 절대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외부세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기의 내면을 조정하고 적응시켜 나가는 내면의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 아니라 정의와 역사의 진보를 위하여 외부세계를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격정시대』의 서선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헤겔의 ‘문제적 개인’ 또는 ‘세계사적 개인’이 아니다. 서선장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식민지 민중의 삶, 조선의용군 공동체의 삶의 한부분이며 그들과 운명을 같이한다. 서선장의 성장은 특정한 개인의 내면의 개별적 성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개별성의 한계를 넘어 식민지 민중의 성장, 조선의용군 공동체의 성장과 진보와 구별되지 않는다. 『격정시대』에서 서선장의 삶을 비롯한 모든 삶은 절대로 어떠한 개인적 측면도 지니지 않는다. 인간은 철저히 외면화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가능한 최대의 외향성이 달성된다. 『격정시대』전체를 통틀어 등장인물 혼자만의 생각, 그의 내밀한 경험, 그의 내면 독백이 나타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격정시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내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물의 존재는 그의 행위와 대화, 작중화자의 객관적 서술로 나타난다. 적절하게 공표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한 인물의 전(全) 존재는 외적 표현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완전하게 성취하며, 진정한 삶의 경험과 진정한 현실적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외적인 방식을 통해서이다.”²⁵⁾ 『격정시대』에서 성장은 민중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해석되며 내면의 변화와 발전은 전적으로 배제한다. 이러한 내면의 배제는 소설의 구성에 영향을 주어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성적이고 개방적인 서사구조를 지향하게 한다.

『격정시대』에서 가난, 윤리, 도덕 등은 다른 소설에서의 전통적 의미와는 다르게 민중의 관점에서 민중의 언어로, 즉 비공식언어로 재해석된다. 여기서는

25)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p.446.

가난에 쪼들리고 빈궁에 허덕이는 식민지 백성의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 모습보다는 그러한 가난과 빈궁 속에서도 삶의 용기와 희망,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과 빈궁 속에서도 때묻지 않고 쪼들리지 않는 민중의 정서와 깨끗한 인정을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식민지 민중의 가난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며 가난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각박함보다는 따뜻한 인정과 넉넉함, 푸근함이 오간다. 도덕과 윤리의 의미, 기준도 이러한 서로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 있는 감싸안음 등의 정서 속에서 그들 나름의 표준과 방식으로 해석된다.

목숨을 걸고 사나운 파도 속에 뛰어들어 태풍으로 조난당할 위기에 놓인 배 위의 사람들을 구한 씨동이는 그 대가로 한진사가 내리는 상금 50원을 한사코 거절한다. 그의 어머니가 50원이면 쌀 여덟 가마니라고 간청을 해도 그의 아버지가 억눌러도 씨동이는 그런 인کم 떨어지는 일은 못한다며 50원을 기어이 되 돌려준다. 그러한 씨동이가 점순이네 원두밭을 지날 때에는 “저의 밭 드나들 듯이 버젓이 드러내놓고 원두밭에 들어가 줄참외 대어섯개를 익은 것으로 골라 따서 앞썰에 안고 나왔다.”²⁶⁾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들이 바로 점순이 아버지, 삼촌, 오래비였기 때문에 점순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칠 수 없음을 턱 대고 하는 짓이었다. “점순이 할아버지, 그 고불이가 나 참외서리한다구 혼 한번 단단히 내놓겠다구 버른다더니... 이젠 병어리 냉가슴이나 앓게 됐소.”²⁷⁾라고 큰소리로 지껄이는 씨동이에게는 고상함이란 눈곱만큼도 없다. 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선장의 아버지 서서방을 부축하여 가면서 아버지의 흰 고무신을 찾는 선장에게 씨동이는 “아무거나 그중 나은 걸루 두어켤레 집어들구 오나.”²⁸⁾라고 시킨다. 그러나 씨동이의 이러한 참외서리나 신발 도둑질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정의 차원에서 너그러운 용서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의 식모첩이 된 쌍년이에 대해서도 소설은 전통적인 도덕, 윤리적인 의미와 기준이 아닌 민중의 관점에서 그의 처지를 이해

26) 김학철, 『격정시대』 상, 룡녕민족출판사, 1986, p.47.

27) 위의 책, p.48.

28) 위의 책, p.33.

하고 동정하며 그것 역시 식민지 민중의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삶의 한 형태로 너그라이 포용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관용구의 뜻은 살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인데 소설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에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해서 딸자식 하나를 가까스로 키웠는데 옆친데랴친데로 허리를 못쓰는 병에 걸리어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각다못해 외동딸 쌍년이를 돈많은 일본사람에게 첩으로 주었었다”²⁹⁾고 쓰고 있다. 쌍년이네의 가난을 형상적으로 나타내면서 일본 사람의 첩으로 딸을 들여보낸 쌍년이네를 도덕·윤리적으로 타매하기보다는 따뜻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보내고 있다. 도덕과 윤리가 민중의 관점에서 민중의 언어로 재해석된 것이다. 또한 씨동이와 쌍년이의 ‘불륜’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떠나 가난으로 이루어지 못한 그들의 사랑을 안타까워하고 동정한다.

이러한 넉넉함과 포근함의 정서는 민중 생활어의 사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소설에는 ‘정가롭다(깨끗하다)’, ‘자저하다(주저하다)’, ‘고자누룩하다(조용해지다)’, ‘물계(물정)’, ‘놀림가마리(놀림거리)’, ‘주사니것(명주로 만든 옷가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생경한 어휘나 표현들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의 전부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는 말들이기도 하고 마치 고향의 잊혀진 사투리처럼 이해 이전에 정서로서 다가오는 말들”³⁰⁾이다.

『격정시대』에는 ‘에요’라고 쓰인 서술어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돌이 먹을 밥을 싸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면이야 오죽 좋겠어요.”, “눈뜨구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가보겠어요.”, “난 여기 어질터분한 것들이나 좀 치워놓고 가겠어요.”, “오늘 밤 이리루들 쏘아져올 것은 틀림없어요.”, “인제 좀 화기가 돌게 됐어요.”, “그동안 키가 더 크잖으셨어요.”, “고만주세요, 나리두 다 알았어요.” 등과 같이 서선장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한선희가 오빠 한정희에게, 조시원의 누이동생이 사모하는 사람 한정희에게 전하는 말에서 ‘에요’라는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한층 더 여성스러움과 순박함을 드러내었고 부드러운 민중적 정서를 잘 표출하였다. 이러한 민중 생활어의 복원은 상당

29) 위의 책, p.14.

30) 위의 책, 서문.

부분 『임꺽정』에 의한 것이다.

『임꺽정』에는 남북조선 어느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멋진 어휘들이 거의 무진장으로 들어 있어서 우리말의 ‘어휘대사전’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번에 내가 어느 창작소설에서

《저는 이미 마음 속에 정한 사람이 있어요》라는 말을 썼더니 편집자는 친절하게도 《있어요》를 《있어요》로 고쳐놓았었다. 물론 《있어요》와 《있어요》는 같은 말이다. 그러나 《있어요》에는 아름다운 여자의 《맛》이 들어있다. 이것은 여자 뿐 만이 아니다. 남자도—젊은 남자가—《네 제가 그랬어요》하는 것이 《네 제가 그랬어요》하는 것보다 훨씬 감칠 맛이 있는 법이다. 내 말이 미덥잖거든 『임꺽정』을 한번 뒤져보라. 맨 《에요》 투성일테니.³¹⁾

또한 소설은 많은 속담과 관용구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속담이란 ‘민중에 의한 구비전승의 속언으로 된 비유적 표현의 교훈적이고 압축적인 생활언어’이다. 속담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것으로, 민족 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생활의 문학³²⁾이다. 관용구는 고사나 배경설화를 갖기 마련이고, 그 고사나 배경설화는 한 시대의 보편적 체험이 관여된다. 그러므로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집단은 그 체험과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속담과 관용구는 본질적으로 민중의 언어이며 언어의 비공식적 측면을 이루는 주요한 어휘적·민속적 장르이다.

바흐젠에 의하면 “언어의 비공식적 측면은 라블레 이전에 그 안에 시사적 농담, 짧은 이야기, 속담, 말장난, 격언, 표어, 선정적인 수수께끼, 민요 등의 즉시 활용 가능한 어휘적인 장르 및 기타 하위의 민속적 장르를 포함”하고 있었는 바, 그것들은 “완전한 형태로 혹은 산재한 단편적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러한 “형식들 각각에는 그것 특유의 관점과 현실의 취사선택(주제), 현실의 구성 및 언어와의 관계 등이 포함”³³⁾되어 있다. 『격정시대』에서는 “속담 활용이나 에피

31) 김학철, 「아름다운 우리 말」, 앞의 글, p.308.

32) 이기문, 『속담사전』, 일조각, 1980.

33) 미하일 바흐젠, 앞의 책, pp.444~445.

소드의 극적 재미, 유머, 풍자적 수법” 등 “생동하는 민중의 산 입말”³⁴⁾을 구사하여 식민지시대 민중의 세태와 풍속을 생생하게 복원하였으며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생활현장을 “민중적 생활현장”³⁵⁾으로 만들어놓았다.

또한 조선의용군 투쟁사의 체험적 복원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소설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 전쟁, 독립운동, 영웅 등 전통적이고 엄숙한 모형들이 전부 재확립된다. 여기서는 혁명, 전쟁, 독립운동 등이 원래 연계되어있던 위엄과 비장함, 숭고함, 처절함, 무거움, 슬픔 등 의미가 파괴되고 그것들은 인간의 진실한 삶과 감정이라는 참된 맥락에서 새롭게, 보다 솔직하게 해석된다. 조선의용군 전사들에게도 혁명과 전쟁은 간고하고 참혹한 것이며 전우들의 부상과 희생은 비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비애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펼쳐나선 혁명과 전쟁,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또한 정의와 민족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늘 희망에 불타있었고 내면의 동요나 갈등이 없었다. 그들의 세계관은 극히 단순하여 “무릇 항일하는 사람은 다 영웅호걸이요, 안하는 년놈은 다 개돼지였다.”³⁶⁾ 2,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였으므로 그들 역시 장난이 심하다. “객관적으로 절박하기 짝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 소설 속의 수많은 ‘혁명투사’들은 낙관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우스개와 객담을 늘 총보다 더 요긴하게 지니고 산다.”³⁷⁾

야맹증에 걸린 이태성이를 골려먹으려고 밤행군을 할 때 미리 짬짜미를 짜 그의 앞에서 대거리로 도랑을 건너뛰는 사냥을 함으로써 이태성이를 밤새 건너뛰게 하여 기진맥진하게 만든 일, 이정호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 마음으로 너도나도 슬그머니 그를 찾아 천진고기만두나 얼음사탕 연밥을 사주며 미리 결혼을 약조 받은 일, 그런가 하면 그들 각각에게 모두 누이동생을 시집보낸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천진고기만두와 얼음사탕 연밥을 실컷 얻어먹은 이정호, 잡목림에서 노숙할 때 시체와 하룻밤을 잔 호유백이한테 재수가 있겠다느니, 백살 사는 건 떼놓은 당상이라느니 놀려먹은 일, 김두봉 선생의 딸한테 뒷구멍으로

34) 임규찬, 「김학철소설에서의 역사성과 문학적성 - “격정시대”를 중심으로」,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연변인민출판사, 2002, 9, p.527.

35) 위의 글, p.527.

36) 김학철, 『격정시대』 3, 앞의 책, p.192.

37) 김명인, 앞의 글, p.247.

연애편지를 쓰는가하면 서로 자기한테 차례진 위문품 뺏쓰가 김두봉 선생의 딸이 만든거라고 우기던 일, 최재와 몇몇 친구들이 태항산에서 메기를 잡아먹고 당지의 농민들에게 끌려다니며 기우제까지 지낸 일... 이런 에피소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대해 김학철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조선의용대(나중에는 의용군)는 혁명적 낙관주의로 충만한 애국자들의 집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

이런 긍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운동' 하면 곧 '비장함'과 '처절함'에다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일면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부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우리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지 혈육과 친지들을 다 고국에 남겨두고 단신 외국으로 뛰쳐나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5년씩 10년씩 또는 15년, 20년씩 풍찬노숙의 간고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년 열두달 삼백에순날을 밤낮없이 우국지심에 잠겨만 있다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지레 말라 죽어버리지.

그러므로 장난기와 농담은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장난기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또 아무리 위급한 고비판에도 재치있는 농담은 역시 오갔다.³⁸⁾

김학철이 혁명, 전쟁, 독립운동 등을 그것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그 무게와 부피, 경직된 의미에서 벗어나 낙관주의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체험의 크기와 깊이, 당당함과 떳떳함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김학철은 조선의용군의 한 보통 전사로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허다한 보통 전사들과 같은 관점, 언어를 공유하게 되었고 혁명과 전쟁, 독립운동의 노선이나 정책을 결정짓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제1선에서 수행하는 많은 무명의 보통 전사들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한다. 이러한 재해석으로 하여 소설은 조선의용군 항일투쟁사라는 매우 엄숙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낙관주의로 일관되는

38)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연변인민출판사, 2002, p.201.

데, “주저와 동요, 실패와 좌절, 패배의식에 익숙한 한반도 남쪽의 정서뿐만 아니라, 승리자적 관점, 주체적 관점의 견지라는 강박으로 질식하기 십상인 한반도 북쪽의 정서로도 이러한 도저한 낙관주의는 경이로운 것이 아닐 수 없”³⁹⁾다.

이 소설에서는 영웅, 투사의 의미도 재해석된다. 영웅, 투사가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위대함, 비장함, 완전무결함, 백전백승 등의 신적 의미와 맥락이 파괴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의용군 투사들은 극히 평범한 보통 인간이다. 그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상 결함도 많이 갖고 있으며 용맹하지만 투사답지 않게 겁을 집어먹을 때도 많다. 싸움에서도 그들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실패도 많고 희생도 많다. 그들은 영웅이고 투사이지만 전통적 의미의 영웅과 투사와는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영웅적 관점이 아닌 민중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김학철의 작품에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의용군의 집단을 하나의 특수한 영웅적 세계로 우상화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일반사회와 동일한 민중적 생활현장으로 만들어놓았다는데 있다.”⁴⁰⁾

군관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 ‘전쟁할 때’라는 별명을 얻은 말라췌이 문정은 완전무장을 하고 달리는 훈련을 할 때, 칼은 빼서 침대 밑에 감춰두고 빈 칼집만 허리에 차고 달린다. 그는 힘들어하는 선장이에게 ‘맹추’라고 욕질하며 자기의 비결을 전수하기까지 한다. 장준광은 과외독서를 열심히 하는데 그가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은 모두 예증 따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병원에 입원한 노민이 환자복에 슬리퍼를 신고 침대에서 편히 뒹구는 것이 부러워 장준광은 피병을 했다가 하마터면 피마자기를 반고뿌를 들이킬 뻔했다. 오랫동안 주도하게 준비해 왔던 홍구공원 ‘지신밟기’ 행동에서 선장은 긴장한 나머지 인화장치를 뽑지 않고 폭탄을 뿌려 폭탄이 터지는 대신 한 일본놈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술고래이자 담배귀신인 박무는 일요일 외출시,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와 시간을 어진테다가 주변대위에게 주정까지 부려 그 별로 저녁식사를 하는 두시간 내내 밖에서 ‘차렷’ 구령을 부르는 희한한 벌을 받는다. 이러한 실수와 성격상의 결함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39) 김명인, 앞의 글, p.247.

40) 임규찬, 앞의 글, p.527.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조선의용군 전사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들도 보통 인간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당군대와 함께 항전하던 시기, 조선의용대 전사들 중 일부는 낮에 날창으로 탈주병을 척살하는걸 보거나 서 속이 뉘엿거리 저녁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 오줌 누러 나갈 때에는 어두운 밖에 혼자 나가지 못하고 옆에서 곤히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같이 나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조직의 명령을 받고 마점산, 강진세와 함께 적구나들이를 하게 된 선장이는 적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긴장하고 구석구석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마저 꺼려진다. 이때의 심정을 작가는 “번번히 속으로 무섭증이 나는 걸 아닌보살하기가 쑥스러웠다”⁴¹⁾고 쓰고 있다. 이러한 무섭증은 지척에서 적을 발견했을 때 극도에 달한다. 옷을 벗고 냇물을 건너려고 할 때 미역을 감고 있는 여남은 놈 되는 일본병정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을 발견한 “선장이는 심장이 돌연 고동을 멈춘 것 같았다.” 적들의 수효 역시 언뜻 보았을 때는 경황 중에 훨씬 더 많아 보였다. 선장이는 “마음이 몹시 급하고 당황하여 바지를 벗을 겨를도 없이 그냥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섰다.”⁴²⁾ 불시에 맞부딪친 적 앞에서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심리를 꾸밈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 인간성의 소박함의 또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여기에 대해 김학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전기문학이나 회상기 또는 무슨 전기 같은 것을 통하여 흔히 위인, 결사들에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주인공들이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완전무결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체면 없이 아주 신격화해버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중략)

그러므로 『격정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우점도 있고 결점도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전쟁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겨서 신바람나게 추격을 하는가 하면 저

41) 김학철, 『격정시대』 3, 앞의 책, p.170.

42) 위의 책, pp.173~174.

서 오금아 날 살려라 도망질을 치기도 한다. 적군을 다 총알받이가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허수아비로 만들지도 않았거니와 아군을 다 《전설적영웅》으로 다듬어 세우지도 않았다. 20세기의 《홍길동》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다.⁴³⁾

『걱정시대』의 영웅, 투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보편적인 인간적 자질을 갖춘 평범한 인간들이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결함들을 갖고 있는 보통 인간이면서 보통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장엄한 일들을 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걱정시대』의 영웅, 투사들은 광범한 민중과 동떨어져있는 입장이 아니라 민중 속에 속해 있으며 민중과 같은 시각, 같은 언어, 같은 성격을 확보한 바로 민중 그 자체이다.

이러한 재해석과 재구상은 웃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걱정시대』에서 모든 전통적인 것의 의미를 파괴하고 뒤바꿔놓음으로써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된 것은 ‘웃음’의 요소이다. 그것은 웃음의 비공식적 측면, 즉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허위에 찬 언어적, 이데올로기적 껍데기를 벗겨내는 웃음의 특별한 힘과 능력”⁴⁴⁾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바흐핀에 의하면 웃음은 결코 공식적인 성격을 띤 적이 없었으며, 문학에서도 희극적 장르는 가장 자유분방하고 가장 통제가 적은 장르이다. 이 점은 웃음이 대단히 약화된 형태인 해학이나 풍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웃음은 다른 진지한 형식, 특히 비장한 형식처럼 왜곡되거나 허위에 찬 것으로 될 수 없었다. 웃음은 비장한 진지함이라는 껍질로 덮여있는 공식적 허위의 외부에 존재했다. 여기서의 웃음은 말로 표현되는 웃음이다. ‘일차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활용하는’ 시적 언어 사용, 즉 비유와 더불어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웃음을 표현하는 많은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는바, 풍자와 패러디, 해학, 농담, 다양한 형태의 희극적인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말로 표현되는 웃음에 의해 말에 포함된 관점은 재해석되며 언어의 양식 및 언어와 사물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화자의 관계 또한 재해석된다. 언어의 여러 수준들이 다시 자리매겨

43) 김학철, 『“걱정시대”의 창작과정』, 『김학철론』, 후릉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pp.299~300.

44) 미하일 바흐핀, 앞의 책, p.443.

지며, 통상적으로 연관되지 않던 것이 인접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연관되던 것에는 거리가 생겨나게 되며, 친숙한 모형이 파괴되어 새로운 모형이 창조되고, 언어와 사유에 대한 언어학적 규범은 파괴된다. 또한 언어내적 관계에 고정된 한계들이 끊임없이 침범당하며, 나아가 주어진 폐쇄된 언어적 총체의 경계도 마찬가지로이다.⁴⁵⁾

김학철이 『걱정시대』에서 전통적인 것들의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해 사용한 웃음의 가장 주요한 원천은 유머이다. 여기에 대해 우선 김학철 자신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스개 즉 유모아가 부족하거나 아주 없는 작품은 읽기가 따분합니다... 독자가 따분해하는 작품에는 아무리 심오한 철리가 담겨있더라도 그것은 실패작이탈밖에 없습니다. 문학작품은 약이 아니므로 상을 찡그리고 억지로 삼킬수는 없는 것입니다.⁴⁶⁾

김학철은 유머의 감각 및 맛을 찾기에 골몰하였는데 “저는 따분한 설교는 딱 질색하는 사람”⁴⁷⁾이라고 고백한다. 파금(巴金)의 소설은 걱정으로 차 있으나 우스개의 부족이 옥의 티이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세계명작이나 공제회(共濟會)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목은 참기 어려운 것이라 주장하는 김학철은 고골리의 『파라스 블리바』,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의 적절한 숨 돌리기 수법을 기리고 있다.

『걱정시대』는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괴벽한 성미와 우둔한 행동, 거친 장난, 영웅과 투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음과 유치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내는데 이때의 웃음은 결코 비웃음이나 비판성을 띤 날카로운 웃음이 아니다. 이때의 웃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모든 실수와 결함,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껴안아주는 아량과 이해를 동반한 것이며 애뜻함과 정감을 동반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신뢰와 폭넓은 사랑이 『걱정시대』의 웃음의 성격을 풍자나 아이러니가 아닌 유머⁴⁸⁾로 규정한 것이다.

45) 위의 책, pp.442~443 참조.

46) 김학철, 『문학도끼리』, 『김학철론』, 흥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pp.285~286.

47) 위의 글, p.285.

이러한 유머와 혁명적 낙관주의는 조선의용군 전사로서의 육체의 기억을 통한 체험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며, 가열 치열한 전쟁과 일본 감옥에서의 정치범 생활, 해방직후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월북, 조선전쟁 중 중국 피난, 중국에서의 반우파투쟁과 문학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파란만장한 삶에 의한 것이다.⁴⁹⁾ 『격정시대』를 관류하는 낙관주의는 “정치사상적 신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어떤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수준의 어떤 것에 가깝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늘 함께 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생겨난, 그리하여 모르는 사이에 삶과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놓여난 달관에 가까운 경지”⁵⁰⁾이다. 이러한 달관의 경지와 인생에 대한 역투사의 자세는 폭풍취우와 같은 한 세기를 살아온 조선의용군의 ‘최후의 분대장’으로서 김학철만이 가능한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김학철의 대표적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와 『격정시대』를 중심으로 소설 언어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어떻게 주제표출과 연관되며 어떻게 소설의 담론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소설의 언어란 단순히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수사학적 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 이념적 차원에서 쓰인 것이며 소설의 주제와 소설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내용과 형식의 한 측면이다. 김학철의 첫 장편소설이자 중국 조선족의 첫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는 표준어와 단일 언어의 구사로 50년대 중국의 지배적 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공식 문학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80년대 중, 말기에 씌어진 『격정시대』는 다양한 방언의 구사, 그리고 민중의 담론에 기초한 다양한 언어의 재해석 등을 통해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48) 유머는 골계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학과 통한다. 해학은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해방감을 주며 인격보호의 역할을 한다. 해학은 억제를 거부하고 감정을 거부하면서도 현실 속에 있음을 긍정하나 내향적이며, 인간내면이 작용한 경험으로 뭉쳐진 것으로서 보다 경험적이고 생활의 체험을 종합하는 것이며 쉽사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발견을 탐색하게 한다.

49) 이해영, 「1940年代 延安 體驗 形象化 研究—“항진별곡”, “연안행”, “노마만리”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00, pp.49~50.

50) 김명인, 위의 글, p.248.

지배적 담론에서 벗어나 비공식 문학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한 작가의 소설이 언어, 주제, 형식 등 측면에서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설의 언어가 지닌 사회, 이념적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상, 하, 풀빛, 1988.
- 김학철, 『격정시대』, 료녕민족출판사, 1986.
- 김학철, 『아름다운 우리 말』, 『태향산록』, 연변인민출판사, 1998.
- 김학철, 『문화도끼리』, 『천지』, 1988년 제6호.
-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연변인민출판사, 2002.
- 김학철, 「『격정시대』의 창작과정」,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 임규찬, 「김학철소설에서의 역사성과 문학성-“격정시대”를 중심으로」,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연변인민출판사, 2002.
- 이기문, 『속답사전』, 일조각, 1980.
- 이해영, 「1940年代 延安 體驗 形象化 研究-“항진별곡”, “연안행”, “노마만리”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00, pp.49~50.
-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 《창작과 비평》, 2002년 봄호.
- 연변조선족 자치주 개항 집필소조, 『중국의 우리민족』, 한울, 1988.
- 우한용, 「채만식 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과 세계성」, 「조선-한국 문화의 역사와 전통 : 언어 문학 분과 발표 논문집」(연변대학교 창립 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8.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 미하일 바흐친, 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